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구조 분석

-서울시 기혼 남, 여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Marital Family Role with Relation to the Sex-role attitudes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博士課程 : 李 聖 姬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in Women's University

Dotoral Course : Sung Hee Lee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副教授 : 金 兌 玄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Tae Hyun Kim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3.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4. 연구의 제한점 |
| 1. 성역할 태도의 개념 | IV. 연구결과 분석 |
| 2.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 1. 연구문제 I의 분석 |
| 3. 부부간의 가족역할구조에
관한 연구 | 2. 연구문제 II의 분석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3. 연구문제 III의 분석 |
| 1. 연구문제의 설정 | 4. 연구문제 IV의 분석 |
| 2. 측정도구의 작성 | V. 결론 및 논의 |
|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sex-role attitudes and marital family role structure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May, 1989 in Seoul on 265 persons who are married. The statistical procedures used were frequency, percentile, ony-way ANOVA, DMR, T-test, x^2 -test, and Pearson product corre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married men have more traditional sex-role attitudes than the married women. Their sex-role attitudes were influenced by the personal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age, husband's and wife's educational levels, family monthly income, family life cycle, marriage pattern, and child number.

2) The tendency of marital family role performances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arried men and women. Their marital family roles were influenced by the personal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husband's and wife's educational levels, wife's employment status, family monthly income, marriage pattern, and child number.

3) There i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x-role attitudes and marital family roles on the married men :

When their sex-role attitudes are more modern pattern, the structures of marital family roles are jointed.

4)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x-role attitudes and marital family roles on the married women.

I. 문제의 제기

근대적 산업사회의 성립과정으로 현대의 가족이 소비단위로 기능을 하게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부부간에는 점차 경제적 협력과 가족역할의 분담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性役割도 家父長制에서 평등주의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남편의 가사참여는 전통적인 역할개념을 와해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남녀의 제능력 발달에 있어서도 권리와 기회의 평등화는 현대사회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바, 이는 가정에서의 남녀 즉 남편과 아내의 평등화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의 평등은 가족역할의 공동화로 비롯되는 것으로 가족역할을 수행할 때 부부는 전통적인 규범적 역할개념에 구속되어 행동하기 보다는 역할의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조화있는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과거 전통적인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분화되고 점차 가족구성원의 역할분담율도 달라져 가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二元的인 양상을 띠고 있다. 즉, 現 한국사회의 가치규범은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잔존으로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성차별적인 전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들의 태도가 대부분 성차별적인 경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결합된 부부관계에 갈등을 초래하여 가족적역할과 직업적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 여성의 결혼불안정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김태현, 이성희 1989).

Bailyn, Glenn과 Walters 등이 여성의 직업활동을 고무시키거나 혹은 저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남편의 태도임을 밝히고 있으며(이정연 1983), Housknech와 Macke(1981)등도 전문직 여성의 결혼적응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것은 가족이 아내의 직업에 편의를 도모해 주는 정도이며 특히 남편의 지지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다(임정빈, 정혜정 1986).

이에 반해 이효재(1977)는 주위사람들의 여성 취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등도 중요하지만 여성 자신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Barnett와 Baruch(1987)도 가족생활에서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는 남편의 태도보다 부인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근대적 가치관을 감정이입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Lerner(1958)은, 감정이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개방된 마음으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따라서 감정이입의 개방세계에 있는 남편은 아내의 가사역할을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역할로도 인식할 여유가 있게 되며 나아가 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Lein(1979)은 남성이 가족역할 특히 가사영역에 대폭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가사활동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상호반대 되는 두 감정을 갖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많은 남성들이 가족생활 유지에 있어서 가사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활동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동시에 남성은 생업과 직결되는 유보수 노동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여가에 자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가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 보수 노동에 사용 할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로 볼때, 부부간의 가족 역할참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내의 가족역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의 역할구조(이은식 1976; 류시중 1976; 최재석 1980; 김명자 1981; 옥선화 1982; 한남제 1984; 이성희 1986)와 분담시간(윤복자 1975; 임정빈 1981; 김규환 1983; 이정수 1984)의 측면에서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가족역할에 있어서 분담행동을 작용케 하는 개인의 가치관, 태도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함을 느껴, 기혼 남, 여를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태도의 정서적인 면과 가족역할의 참여라는 행동적인 면에서의 상관관계를 試案的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태도의 개념

구조기능적 가족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는 T. Parsons (1955)은 가족관계에 중점을 둔 성역할 개념으로서 남성은 도구적 역할을 여성은 표현적 역할을 전담하여 두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됨으로써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된다는 성역할 분화 이론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 여의 역할 구분 개념은 단순히 역할을 性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 고정적인 관점으로 이들에 대한 상호접근성 내지 대치성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사실, 역할이라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현상이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 가족구조의 형태와 이에 따른 상황들의 변화로 특정의 역할이 감소되거나 혹은 조성 될 수 있는 것이다(김태현 1989). 사회학자 Scanzoni와 Fox(1980)은 성역할 개념을 성계층화 개념, 性別노동분업의 개념, 성역할규범 개념의 세가지로 설명하고 성계층화와 性別노동의 분업에 대한 호의적, 비호의적 태도가 성역할 규범이라고 하고 이 성역할 규범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보상과 댓가에 따라 주어진다고 하였다. Osmond와

Martin(1975)은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역할 태도의 개념을 두가지 연속체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평등, 불평등 연속체의 개념으로,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여성은 가정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태도'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와 직업활동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근대적 태도'의 연속체 개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역할 구분 정도의 연속체 개념으로서 남성 對 여성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二元的 분리 개념을 갖는 것은 '전통적 태도'로 보고 性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리시키지 않고 융통성을 두어 함께 수행 해 나가려는 力動性을 지향하면 '근대적 태도'로 보고 있는 견해이다.

국내연구(이미숙 1980; 최규련 1984; 이형실, 옥선화 1985; 정승혜 1988)는 이의 이론들을 기초로 성역할 태도를 가족역할 구분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 된 경향으로 정의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여 성역할 태도를 '남성, 여성에 기대된 행동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지속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역할의 分化를 지지하는 것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남성과 여성역할간의 융통성과 역할공유를 지지하는 것은 '근대적 태도'로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한다.

2.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많은 연구들이 남성보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임을 보고하고 있다(Scanzoni 1975; Tomeh 1978; 최규련 1984; 이형실, 옥선화 1985). 이는 여성이 지배적인 남성집단에 비해 종속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권리와 이익에서 더 열등감을 경험하는데 반해 남성은 지금 그대로의 구조 즉, 전통적인 성차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어머니나 아내상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분리하여 생각하려는 태도를 여성처럼 쉽사리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 하겠다.

교육수준은 성역할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rogen, Kutner 1984; Scanzoni 1975; 박숙자 1978;

이미숙 1980; 최규련 1985; 이미숙 1985), 여성의 경우는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Tomeh 1975; 이형실, 옥선화 1985). 여성에게 있어서 교육수준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높은 교육수준의 전문직 여성들은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를 둔 경우가 많았다(Hoffman 1977). 교육은 신념이나 행동에서 자유주의적이고 근대적인 성향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연히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여성이 적응하고 또 갈등을 겪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여성의 활동영역이 집밖으로 확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된 역할 변화 문제로서,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전통적 기대의 지속은 취업주부의 역할과중 현상을 유발시켜 부부의 결혼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김혜련(1982)은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 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자경심, 자아개념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밝혔다.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남편의 태도 경향을 파악 한 최규련(1984), 이형실, 옥선화(1985)의 연구결과는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임을 보고 하였다. 이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가족의 부인이 직업을 갖는 경향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성역할 태도와 연령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azoni 1975; 박숙자 1978; 박태은 1983). 김미숙(1981)도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여성역할인 가사노동에 불만족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규련(1984) 연구는 부인의 경우 가족 생활주기가 만자녀 취학 전기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근대적 성역할 태도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남편의 경우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Mason, Czejka, Arber(1976)의 미국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소득은 성역할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국내의 대다수 연구들은 가족소득이 높은 집단이 가족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주경란 1980; 최규련 1984), 여성의 경우 그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미숙 1980; 정종희 1983; 이정련 1983; 박태은 198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미 있는 몇가지 개인 환경적 변인을 선정하여 기혼남, 여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3. 부부간의 가족역할 구조에 관한 연구

가족은 상호작용 하는 인격체들로 구성 된 일련의 사회체계로서 가족내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에게 상호 관련 된 지위를 부여하고 그 지위에 따른 특유의 행동유형인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역할이라는 것은 가족구성원이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발생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진다 하겠다.

가족의 역할로서 행하는 일련의 행동은 공통성을 갖는 몇개의 영역으로 분류 되어지며, 이러한 영역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달리 나타나고 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을 도시로 한것과 농촌으로 한것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도시가족에 관한 연구를 1960~1986년의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최재석(1966)은 부부가 행하는 가족의 역할을 가계 지지자, 가계의 관리, 가사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계의 지지자는 80%가 남편이 수행하였으며, 가계의 관리는 부부공동의 비율이 높았고, 가사영역은 대부분 주부가 수행하는 역할구조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변인은 결혼지속년수, 생활수준, 부부의 학력, 부인의 직장유무, 결혼형태, 자녀수로 밝히고 있다. 최신덕(1972)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역할중에서 대체로 자녀교육, 친척관계 등은 시간 형편에 따라서 수행하고, 매우 중요한 일은 부부가 함께 또는 부부공동 결정권을 행사하는 역할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가사부문에서 남편의 참여는 극히 낮았다. 류시중(1972)의 연구결과에서도 간단한 집손질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활동에서 남편이 수행하는 비율은 0~2%로 아주 저조한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가사활동을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족복지적 측면에서 남편의 가사역할 수행을 조사 한 이은식

(1976)의 연구는, 건전가족에 비하여 문제가 있는 문제가족일수록 가사영역에서 남편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옥선화(1982)는 부부간의 가족의 역할을 가사활동, 경제활동, 대외활동, 자녀교육활동, 여가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사활동 영역은 대부분 주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남편이 주로 수행하며, 대외활동과 자녀교육활동은 부부공동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인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무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족성원의 역할변동을 조사한 정웅정(1980)은 자녀교육활동, 경제활동, 대외활동, 부부관계 등 6개 영역에 걸쳐 부부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을 연구한 결과, 가사활동에 대해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아직도 전통적 역할 구분 의식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그의 영역에서는 대체로 부부가 함께 행하는 민주적인 참여와 공동결정권을 행사하는 역할구조라고 하였다. 이를 가족형태별로 살펴보면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더 민주적이고, 사회계층별로는 중류가 상류보다 더 민주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남제(1984)는 가족의 역할을 생계담당자의 역할, 가사담당자의 역할, 아이를 돌보는 역할, 아동의 사회화 역할, 친족관계 유지의 역할, 사교적 역할 등 6개영역으로 나누어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간의 역할수행 구조를 보고하고 있다. 부부간의 역할수행 구조는 사회계층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계층을 판별하는 변인으로 직업, 학력등을 제시하였다. 이성희(1986)는 부부간의 가족의 역할을 5개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부부간의 역할 공유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부간의 역할 공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부간의 역할 공유도에도 차이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사노동량과 가족생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취업주부 가족의 역할구조에 관한 연구(이동원 1976; 유영주 1977)와 취업주부와 일반주부를 비교하여 가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것(과(이미숙 1979; 변화순

1980; 김명자 1981), 가족의 역할을 남편이 기대하는 처의 역할을 규명한 것(박인덕 1970)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부부의 가족역할구조는 아직도 상당히 전통적인 측면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서구에서 보여지는 부부상호간의 대체, 교환의 가능성보다는 관련변인의 영향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가족역할을 경제활동, 가사활동, 대외적활동, 자녀양육 및 교육활동, 여가활동 등 5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로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구조의 분석을 위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의 미있게 나타난 몇가지 환경변인을 선정하여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의 설정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기혼 남, 여의 성역할 태도 및 부부간 가족역할구조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II) 기혼 남, 여의 성역할 태도는 개인 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 기혼 남, 여의 부부간 가족역할구조는 개인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V) 기혼 남, 여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부부간 가족역할구조는 차이가 있는가?

2. 측정도구의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조사 대상자의 개인환경변인을 묻는 9개의 문항과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22개의 문항, 부부간의 가족역할 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23개의 문항으로 총 64개로 구성되었다.

(1) 성역할 태도: Osmond와 Martin(1975)의 Sex-role Attitude(SRA) Scale를 기초로 하였고 그밖에 Brannon과 Juni(1984)의 Masculinity Scale, 정승혜(1988)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조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택, 최종 22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전통적 의

미로 진술 된 각 문항에 대한 태도는 '정말 그렇다(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에 이르는 5단계 Likert-type이며, 22개 문항의 점수를 합한 평균점수로 성역할 태도가 표시된다. 평균점수 범위(1점~5점)중 중간점수(3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다.

본 척도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를 사용하였으며, 가족학 전공교수, 통계학 전문가, 가족학 박사과정 학생에 의하였다. 신뢰도는 문항간의 내적일치도 방법을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 부부의 가족역할구조: 부부간에 가족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옥선화(1981), 이성희(1986)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택, 보완하여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문항은 경제활동, 가사활동, 대외적활동, 여가활동,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 등의 5개영역으로 나누어 구성 된 총 23개의 문항이다. 질문지의 응답방법은 각 문항별로 「전적으로 남편」, 「전적으로 부인」, 「주로 남편」, 「주로 부인」, 「부부 같이」의 5개 선택항을 주어 한 곳에만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결과 해석 방법은 「전적으로 남편」과 「전적으로 부인」에 응답한 것은 1점을 주고 분화형(segregated type)으로 명명하였으며, 「주로 남편」과 「주로 부인」에 응답한 것은 2점을 주고 보완형(complementary type)으로 명명하였으며, 「부부 같이」에 응답한 것은 3점을 주고 공유형(jointed type)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평균점수 범위는 1점에서 3점이 되며, 평균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부부간 가족역할이 분화되는 것이고, 평균점수가 3점에 가까울수록 부부간 가족역할이 공유되는 것이다.

3.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母集團은 1989년 5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기혼남성·여성이 되며, 남·여의 고른 분포를 위하여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1989년 3월 5일 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3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면접법을 통하여 안면타당도로 검증하였다. 본 조사는 1989년 5월 한달간에 걸쳐서 기혼여성의 표집은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들을 통하여 근접가능한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혼남성의 표집은 본 연구자가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배부 된 설문지 총 300부 중에서 미회수, 부실기재 된 것을 제외한 25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다.

표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포, 변량분석(one-way ANOVA), DMR, T-test, χ^2 -test, Pearson 적률 상관 계수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환경변인 분포 상황은 표 1과 같다

4. 연구의 제한점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 남, 여로 한정 시켰으며, 조사대상자의 연령, 계층별에 따른 고른 분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V. 연구결과 분석

1. 연구문제 I의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 태도가 77.1%, 근대적 태도가 22.9%로 편포되어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의 평균점수는 2.65점으로 중간점수 3.00에 못 미쳐 본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태도는 약간 전통적인 편에 속한다(표 2).

성역할 태도 경향을 기혼 남성, 여성에 따라 일원 분산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표 3), 性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혼 남성보다 기혼여성이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Scazoni 1975; Tomeh 1978; 최규련 1984; 이형실, 옥선화 1985)와 일치하였다.

한편, 본 조사대상자의 부부간 가족역할 점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점수가 2.10점으로 중간점수 2.0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대외적활동'이 2.5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사활동'이 1.79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4, 참조). 이와 같이 '가사활동' 영역에서 부부간의 역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환경변인 분포상황

변 인	집 단	빈도(%)	변 인	집 단	빈도(%)
성 별	남	150(56.6)	가정의 총 월수입	* 30만원 이하	8(3.0)
	여	115(43.4)		31~50만원	100(38.1)
	계	265(100.0)		51~70만원	60(22.8)
연 령	20~30세	70(26.5)		71~120만원	61(23.2)
	31~40세	113(42.8)		121만원이상	34(12.9)
	41~50세	47(17.8)	계	263(100.0)	
	51세 이상	35(12.9)	가족생활 단계	확립기	53(20.1)
	계	265(100.0)		만자녀 미취학기	83(31.4)
남편학력	중졸이하	10(3.8)		만자녀 국민학교기	50(18.9)
	고 졸	88(33.2)		만자녀 중, 고등학교기	50(18.9)
	대 졸	139(52.5)		만자녀 대학교기	35(13.3)
	대학원 이상	28(10.6)	만자녀 결혼기	15(5.7)	
	계	265(100.0)	계	263(100.0)	
부인학력	중졸 이하	25(9.5)	결혼형태	중매혼	81(30.7)
	고 졸	136(51.5)		연애혼	139(52.6)
	대 졸	83(31.4)		중매, 연애 절충혼	44(16.7)
	대학원 이상	20(7.6)		계	264(100.0)
	계	264(100.0)	자녀수	0명	51(19.4)
부인직업	있음	84(31.9)		1명	67(25.5)
	없음	179(68.1)		2명	92(35.0)
	계	264(100.0)		3명	28(10.6)
				* 4명	16(6.1)
		5명 이상		9(3.4)	
		계	263(100.0)		

*분석시에 무리함이 따르는 너무 적은 사례수이므로 두집단을 합하여 '50만원 이하 집단', '4명 이상 집단'으로 처리 하였다.

+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표 2. 기혼남, 여의 성역할 태도 점수구간

구 분	빈도(%)
전통적 성역할 태도(1점~3점 미만)	192(77.1)
근대적 성역할 태도(3점 이상~5점)	57(22.9)
평균 점수	2.65
표준 편차	0.625

할공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가사부문에서 남편이 참여하는 비율이 극히 낮았음을 보여 준 여러 선행연구결과(최재석 1966; 최신덕 1972; 류시중 19

72; 정용정 1980; 옥선화 1982)의 제안과 같다.

부부간 가족역할은 기혼 남성, 여성에 따라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표 5), 性別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연구문제 II의 분석

개인환경변인에 따른 기혼 남, 여의 성역할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하였으며,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Range-test인 Duncan-Grouping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표 6).

표 3. 기혼남, 여의 성역할 태도 점수 분포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Min	Max	F값
남	149	2.40	0.586	1.00	3.81	95.21***
여	115	2.81	0.604	1.31	4.40	

***p<.001

표 4. 기혼남, 여의 가족역할 영역별 점수 분포

영 역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Min	Max
경제활동	264	1.93	0.48	1.00	3.00
가사활동	264	1.79	0.41	1.00	2.87
대외적활동	264	2.55	0.39	1.00	3.00
여가활동	264	2.40	0.46	1.00	3.00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	214	2.27	0.55	1.00	3.00
전 체	264	2.10	0.32	1.00	2.86

표 5. 기혼남, 여의 가족역할 점수 분포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Min	Max	F값
남	149	2.09	0.340	1.00	2.86	1.60
여	115	2.12	0.294	1.25	2.71	(NS)

全般的으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 점수가 더 높고, Dunkan-Grouping에 의한 하위집단 간의 차이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더 뚜렷하게 구분되어짐을 볼 수 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Scanzoni 1975; 박숙자 1978; 박태은 1983)와 일치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가 나타나, 남편학력, 부인학력이 높아질수록 성역할 태도는 훨씬 근대적이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여성에게 있어서 교육수준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게 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 준 선행연구 결과(Tomeh 1975; 이형실, 옥선화 1985)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는 또한 성역할 교육이 여성과 남성에게 이 증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여성에게 있어서 교육은 자율감과 남, 여의 평등감을 점차 강조하고 주입 시켜주는 반면, 남성에게는 이러한 측면이 보다 약화된 성격을 띄고 있다 하겠다.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성역할 태도경향을 살펴 본 결과,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보다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기혼 남성의 성역할 태도는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이는 가족적역할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필요로 하는 취업주부 가족에게 있어서 여전히 남편이 전통적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부부간의 갈등이 크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태현, 이성희(1989) 연구에서 비취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결혼불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기혼 남, 여의 성역할 태도는 가정의 총월수입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정의 총 월수입이 많은 집단일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에게 있어서 그 관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가족생활단계에 따라서도, 기혼 남, 여의 성역할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만자녀 미취학기를 중심으로 성역할 태도 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그 관계가 일정치 않게 나타났다. 만자녀 미취학기 이전의 집단이 비교적 젊은

표 6. 개인 환경 변인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집단간 차이

변인	집단	男			女			전체		
		빈도	평균	D.G DF F값	빈도	평균	D.G DF F값	빈도	평균	D.G DF F값
연령	20~30세	33	2.56	A 3 9.98**	36	3.08	A 3 57.93***	69	2.83	A 3 28.14***
	31~40세	72	2.47	A	41	2.78	B	113	2.58	B
	41~50세	26	2.21	B	19	2.65	C	45	2.40	C
	51세 이상	17	2.05	B	16	2.66	C	33	2.35	C
남편학력	중졸이하	5	2.14	C 3 6.92**	4	1.78	C 3 145.92***	9	1.98	C 3 37.97***
	고졸	51	2.23	BC	35	2.60	B	86	2.38	B
	대졸이상	79	2.48	AB	60	3.01	A	139	2.71	A
부인학력	중졸이하	16	2.21	B 3 10.52***	9	2.41	D 3 150.06***	25	2.28	C 3 45.31***
	고졸	72	2.27	B	62	2.66	C	134	2.45	C
	대졸	51	2.59	A	30	3.14	B	81	2.79	B
	대학원이상	9	2.70	A	11	3.32	A	20	3.04	A
부인의 직업	있음	48	2.43	A 1 0.30	36	2.95	A 1 32.51***	84	2.69	A 1 4.92
	없음	100	2.39	A (N.S)	76	2.79	B	176	2.59	A (N.S)
가정의총월수입	50만원이하	68	2.49	A 3 6.76**	39	2.74	C 3 19.71***	107	2.58	BC 3 7.98***
	51~70만원	32	2.15	B	28	2.79	C	60	2.45	C
	71~120만원	35	2.48	A	25	2.90	B	60	2.65	AB
	121만원 이상	13	2.32	AB	20	3.02	A	33	2.74	A
가족생활단계	확립기	37	2.58	A 5 9.04***	16	2.96	B 5 57.17***	53	2.69	AB 5 18.60***
	만자녀 미취학기	50	2.56	A	33	3.08	A	83	2.76	A
	만자녀 국민학교기	22	2.20	B	27	2.82	C	49	2.54	BC
	만자녀 중·고등학교기	15	2.24	B	12	2.60	D	27	2.40	BC
	만자녀 대학교기	17	2.04	B	17	2.44	E	34	2.24	B
만자녀 결혼기	7	2.10	B	7	2.87	BC	14	2.49	C	
결혼형태	중매혼	43	2.13	B 2 16.83***	36	2.59	C 2 85.51***	79	2.34	B 2 39.82***
	연애혼	82	2.54	A	56	2.99	A	138	2.72	A
	중매·연애결혼	23	2.39	A	20	2.86	B	43	2.61	A
자녀수	0명	38	2.59	A 3 11.27***	13	2.99	A 3 46.29***	51	2.70	A 3 21.65***
	1명	35	2.63	A	32	3.06	A	67	2.84	A
	2명	48	2.20	BC	43	2.76	B	91	2.47	AB
	3명	14	2.37	AB	14	2.62	C	28	2.50	B
4명 이상	14	1.95	C	10	2.75	B	23	2.35	AB	

p<.01, *p<.001, 문자 A, B, C는 Dunckan의 범위

표 7. 개인 환경 변인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학의 집단간 차이

변인	집단	남			女			전체		
		빈도	평균	D.G DF F값	빈도	평균	D.G DF F값	빈도	평균	D.G DF F값
연령	20~30세	33	2.11	A 3 0.97 (N.S)	36	2.17	A 3 1.78 (N.S)	69	2.14	A 3 1.70 (N.S)
	31~40세	72	2.11	A 3 0.97 (N.S)	41	2.13	AB 3 1.78 (N.S)	113	2.11	A 3 1.70 (N.S)
	41~50세	26	2.03	A 3 0.97 (N.S)	19	2.01	B 3 1.78 (N.S)	45	2.08	A 3 1.70 (N.S)
	51세 이상	17	2.00	A 3 0.97 (N.S)	16	2.17	A 3 1.78 (N.S)	33	2.03	A 3 1.70 (N.S)
남편학력	중졸이하	5	1.96	A 3 1.29 (N.S)	4	2.26	A 3 2.37 (N.S)	9	2.09	AB 3 2.79*
	고졸	51	2.04	A 3 1.29 (N.S)	65	2.06	A 3 2.37 (N.S)	86	2.05	B 3 2.79*
	대졸	79	2.10	A 3 1.29 (N.S)	60	2.12	A 3 2.37 (N.S)	139	2.11	AB 3 2.79*
	대학원이상	13	2.20	A 3 1.29 (N.S)	13	2.26	A 3 2.37 (N.S)	26	2.23	A 3 2.79*
부인학력	중졸이하	16	2.11	A 3 2.84 (N.S)	9	2.19	AB 3 3.21*	25	2.14	AB 3 5.03**
	고졸	72	2.01	A 3 2.84 (N.S)	62	2.07	B 3 3.21*	134	2.04	B 3 5.03**
	대졸	51	2.17	A 3 2.84 (N.S)	30	2.16	AB 3 3.21*	81	2.17	AB 3 5.03**
	대학원이상	9	2.12	A 3 2.84 (N.S)	11	2.30	A 3 3.21*	20	2.22	A 3 5.03**
부인의 직업	있음	48	2.19	A 1 7.76**	84	2.23	A 1 8.06**	84	2.21	A 1 15.31***
	없음	100	2.04	B 1 7.76**	176	2.09	B 1 8.06**	176	2.06	B 1 15.31***
	50만원 이하	68	2.11	AB 3 8.83***	39	2.12	AB 3 4.25**	107	2.11	B 3 12.19***
	51~70만원	32	1.88	C 3 8.83***	28	2.01	B 3 4.25**	60	1.94	C 3 12.19***
가족생활 단계	71~120만원	35	2.24	A 3 8.83***	25	2.26	A 3 4.25**	60	2.25	A 3 12.19***
	121만원 이상	13	2.00	BC 3 8.83***	20	2.14	AB 3 4.25**	33	2.08	B 3 12.19***
	확립기	37	2.17	A 5 1.66 (N.S)	16	2.20	A 5 0.90 (N.S)	53	2.18	A 5 2.15 (N.S)
	만자녀 미취학기	50	2.08	A 5 1.66 (N.S)	33	2.14	A 5 0.90 (N.S)	83	2.10	A 5 2.15 (N.S)
결혼형태	만자녀 국민학교기	22	2.03	AB 5 1.66 (N.S)	27	2.11	A 5 0.90 (N.S)	49	2.07	AB 5 2.15 (N.S)
	만자녀 중.고등학교기	15	2.05	AB 5 1.66 (N.S)	12	2.04	A 5 0.90 (N.S)	27	2.04	AB 5 2.15 (N.S)
	만자녀 대학교기	17	2.10	A 5 1.66 (N.S)	17	2.16	A 5 0.90 (N.S)	34	2.13	A 5 2.15 (N.S)
	만자녀 결혼기	7	1.85	B 5 1.66 (N.S)	7	2.03	A 5 0.90 (N.S)	14	1.94	B 5 2.15 (N.S)
자녀수	중매혼	43	1.99	B 2 2.92*	36	2.05	B 2 3.48*	79	2.02	B 2 5.82***
	연애혼	82	2.13	A 2 2.92*	56	2.19	A 2 3.48*	138	2.15	A 2 5.82***
	중매.연애결혼	23	2.09	AB 2 2.92*	20	2.10	AB 2 3.48*	43	2.10	AB 2 5.82***
	0명	38	2.17	A 4 2.33 (N.S)	13	2.19	A 4 1.99 (N.S)	51	2.18	A 4 2.99*
자녀수	1명	35	2.13	A 4 2.33 (N.S)	32	2.20	A 4 1.99 (N.S)	67	2.16	A 4 2.99*
	2명	48	2.01	A 4 2.33 (N.S)	43	2.05	A 4 1.99 (N.S)	91	2.03	B 4 2.99*
	3명	14	2.13	A 4 2.33 (N.S)	14	2.12	A 4 1.99 (N.S)	28	2.13	AB 4 2.99*
	4명 이상	13	1.95	A 4 2.33 (N.S)	10	2.17	A 4 1.99 (N.S)	23	2.06	AB 4 2.99*

*p<.05. **p<.01. ***p<.001. 문자 A, B, C는 Dunckan의 범위.

부부충임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세대들의 성역할 태도는 더욱 근대적인 방향으로 진전되리라 추론 해 볼 수 있다.

결혼형태별에 따른 기혼 남, 여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본 결과, 연애혼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夫와 婦의 性愛로 맺어진 자유연애결혼의 특성이 반영 된 것으로 연애기간 동안 성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자녀수에 따른 기혼 남, 여의 성역할 태도에 유의한 차가 발견되었다. 기혼 남, 여 모두에게 있어서,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집단이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집단보다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의 결과는 1명이하의 자녀를 가진 집단이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新婚임을 감안한다면, 자녀수라는 변인의 단일영향이라기 보다는 연령과의 상호관련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3. 연구문제 III의 분석

개인환경변인에 따른 기혼 남, 여의 부부간 가족역할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하였으며,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Range-test인 Dunkan-Grouping 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표 7).

표 8. 가족역할 영역별 성역할 태도

		男		女	
		전통적	근대적	전통적	근대적
경제활동	빈 도	126	23	72	43
	평 균	1.80	2.26	1.97	2.06
	표준편차	0.49	0.53	0.43	0.41
	T 변 량	-4.00***		-1.07(N.S)	
가사활동	빈 도	126	23	72	43
	평 균	1.73	2.18	1.74	1.86
	표준편차	0.40	0.29	0.40	0.39
	T 변 량	-5.06***		-1.56(N.S)	
대외적활동	빈 도	126	23	72	43
	평 균	2.50	2.77	2.51	2.63
	표준편차	0.43	0.28	0.36	0.35
	T 변 량	-3.83**		-1.78(N.S)	
여가활동	빈 도	126	23	72	43
	평 균	2.28	2.67	2.46	2.51
	표준편차	0.52	0.38	0.38	0.36
	T 변 량	-4.48***		-0.67(N.S)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	빈 도	100	14	66	34
	평 균	2.25	2.50	2.13	3.49
	표준편차	0.54	0.44	0.07	0.07
	T 변 량	-1.62(N.S)		-3.30**	
전 체	빈 도	126	23	72	43
	평 균	2.03	2.41	2.07	2.20
	표준편차	0.32	0.22	0.29	0.27
	T 변 량	-5.48***		-2.31(N.S)	

p<.01, *p<.001

기혼 남, 여의 가족역할은 연령, 남편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이성희 198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인의 학력에 따라 기혼남성의 부부간 가족역할에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혼여성의 부부간 가족역할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여성의 집단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월등히 부부간 가족역할이 共有되었다. 그리고 고졸집단보다 중졸이하의 집단이 가족역할이 더 共有된 것은 중졸이하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맞벌이 가족이나 자영업자가 많게 되는 가족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인의 취업여부는 기혼남, 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이 취업을 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족역할을 더 共有하였다. 이 결과는 주경란(1982), 이정수(1984)의 연구에서 부인 취업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부인이 취업하고 있을 때 부부간 가족역할이 더 共有된 옥선화(1982), 이성희(198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주경란, 이정수 연구에서는 가사영역만을 측정하고 있고, 반면 옥선화, 이성희 연구에서는 가사영역외에 4개의 영역을 더 포함시켜 전반적인 가족역할을 측정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들 연구 결과들로 볼 때, 여성 취업이 부부간의 역할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통적으로 여성의 전담역할로 고려되고 있는 가사영역에서는 남편의 협조가 미약하여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아직까지 전통적 가치지향성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총 월수입은 기혼남, 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발견되었다. 71~120만원 집단의 가족역할 공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만원 이하의 집단이 51~70만원 집단보다 역할공유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집단이 저소득층인만큼 맞벌이 가족이나 자영업자가 많은데 반해 가사노동을 맡아줄 역할대행자의 고용이 어려워므로 대신 남편의 가족적 역할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가족생활단계 마다 가사노동량과 가족생활의 質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 해 볼때, 가족생활단계에 따라 부부간 가족역할 구조는 달라질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선행연구(이성희, 1986)와는 달리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에서

가족생활단계를 측정하고 있는 방법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예측상의 문제인가 하는 것은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규명해야 할 것이다.

기혼남, 여 모두 결혼형태에 따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연애혼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역할이 더 共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애혼으로 이루어진 부부는 중매혼으로 이루어진 부부에 비해 婚前 교제기간을 통하여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높여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황적 고려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진 결과라 하겠다. 바로 이러한 측면등이 현대 자유연애결혼이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자녀수가 많으면 그만큼 부부역할 분담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녀수와 부부간의 가족역할구조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남, 여를 포함한 전체집단에서 볼 때, 오히려 1명이하의 자녀를 가진 집단보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집단의 부부역할 공유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2,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남편이 사회적 유보수 노동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시기이므로 가족역할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또한 이 시기의 집단이 비교적 연령이 높은 집단임을 고려 해 볼때 역할 분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지닌 결과라 할 수 있다. Nikols와 Metzen(1978), 윤명희, 임정빈(1985)의 연구에서도 가족크기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否的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4. 연구문제 IV의 분석

성역할 태도 유형(전통적, 근대적)에 따라, 가족역할 각 하위영역별로 부부간 가족역할구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定量的 分析方法으로써 T-test 하였다(표 8). 그 결과, 남성은 '경제활동', '가사활동', '대외적활동', '여가활동' 등에서,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간 가족역할이 共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에서 만이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간의 가족역할이 共有되었으며, 이외의 영역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부부간의 가족역할구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서 전반적인 가족역할은 자신의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임(一任)되어지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부부간 가족역할

구조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定性的 分析方法으로서 χ^2 -test하였다(표 9, 10).

그 결과, 남성의 경우는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때는 '보완형'의 가족역할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때는 '공유형'의 가족역할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외적 활동' '자녀교육 및 양육 활동'에서는 성역할 태도 유형과 상관없이 '공유형'의 가족역할구조가 우세하였다. '대외적활동'은 주로 사회적 활동의 영역인 만큼, 남성들이 이에 대하여 전통적, 보수적 관념의 기준을 덜 갖게 되므로써 보다 많은 역할 참여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표 9. 기혼 남성의 성역할 태도 유형별 가족역할구조

가족역할영역	성역할태도유형	가족역할구조(%)			χ^2 -값	유의도
		분화형	보완형	공유형		
경제활동	전통적	31.75	56.35	11.90	14.506	**
	근대적	13.04	12.35	40.00		
가사활동	전통적	42.06	52.38	5.56	20.690	***
	근대적	0.00	20.48	46.15		
대외적활동	전통적	3.97	24.60	71.43	4.166	N.S
	근대적	0.00	8.70	91.30		
여가활동	전통적	6.35	35.71	57.94	11.998	**
	근대적	0.00	4.35	95.65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	전통적	14.00	41.00	45.00	2.360	N.S
	근대적	0.00	42.86	57.14		
전체	전통적	12.70	69.05	18.25	27.081	***
	근대적	0.00	30.43	69.57		

p<.01, *p<.001

표 10. 기혼 여성의 성역할 태도 유형별 가족역할구조

가족역할영역	성역할태도유형	가족역할구조(%)			χ^2 -값	유의도
		분화형	보완형	공유형		
경제활동	전통적	22.22	58.33	19.44	0.599	N.S
	근대적	20.93	53.49	25.58		
가사활동	전통적	48.61	45.83	5.56	3.024	N.S
	근대적	37.21	48.84	13.95		
대외적활동	전통적	0.00	31.94	68.06	2.433	N.S
	근대적	0.00	18.60	81.40		
여가활동	전통적	2.78	12.50	84.72	1.474	N.S
	근대적	0.00	16.28	84.72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	전통적	25.76	36.36	37.88	10.952	**
	근대적	2.94	29.41	67.65		
전체	전통적	8.33	72.22	19.44	2.775	N.S
	근대적	4.65	62.79	32.56		

**p<.01

표 11. 기혼여성의 성역할 태도 및 가족역할 하위영역들간의 상관계수

변 인	1	2	3	4	5	6	7
1. 성역할 태도	1.000						
2. 경제활동	.1206	1.000					
3. 가사활동	.1186	.4698***	1.000				
4. 대외적활동	.1626	.0955	.3460***	1.000			
5. 여가활동	.0814	.2060*	.3757***	.2774**	1.000		
6.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	.2114*	.2303*	.5273***	.2538*	.2435*	1.000	
7. 전체가족역할	.1932*	.6170***	.8959***	.5420***	.5402***	.6828***	1.000

*p<.05, **p<.01, ***p<.001

표 12. 기혼남성의 성역할 태도 및 가족역할 하위영역들간의 상관계수

변 인	1	2	3	4	5	6	7
1. 성역할 태도	1.000						
2. 경제활동	.2680***	1.000					
3. 가사활동	.4182***	.3853***	1.000				
4. 대외적활동	.3362***	.3238***	.3811***	1.000			
5. 여가활동	.3877***	.3608***	.4191***	.6139***	1.000		
6.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	.2651**	.2030*	.4887***	.2857**	.4399***	1.000	
7. 전체가족역할	.4824***	.6594***	.8330***	.6717***	.7227***	.6668***	1.000

*p<.05, **p<.01, ***p<.001

결과는 전통적으로 '대외적 활동'은 주로 남편의 역할영역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부인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은 전통적으로 부인의 활동영역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남편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반면, 여성의 경우를 살펴 보면, 성역할 태도 유형과 가족역할구조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역할이라는 것은 선택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임되어지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결과는 부부간 가족역할 共有는 여성의 가치관과 태도보다는 남성의 가치관과 태도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가족생활에서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는 남편의 태도보다 부인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제안한 Barnett와 Barch(1987)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것으로, 한국의 가족생활이 서구와는

다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가족생활 특히 부부간 가족역할구조는 부인의 영향력 보다 남편의 영향력이 많이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론은 성역할 태도와 가족역할 각 하위영역과의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표 11, 12)

여성의 경우, 그들의 성역할 태도와 가족역할과의 상관관계($r=.19, p<.05$)는 미약한 반면, 남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성역할 태도와 가족역할과의 상관관계($r=.48, p<.001$)는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하위영역인 '가사활동'에서 여성은 성역할 태도와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으나($r=.11, p>.05$), 남성의 경우는 상관관계($r=.41, p<.001$)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남, 여 모두에게 있어서 전체 가족역할과 '가사활동'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하위영역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r=.83, p<.001$), ($r=.89, p<.001$), 가족역할에서 '가사활동'영역이 차지하는 비중

표 13. 기혼남, 여의 부부간 가족역할구조

	분화형	보완형	공유형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경제활동	68(25.8)	146(55.3)	50(18.9)	264(100.0)
가사활동	108(39.4)	137(51.9)	23(8.7)	264(100.0)
대회적활동	5(1.9)	64(24.2)	195(73.9)	264(100.0)
여가활동	10(3.8)	62(23.5)	192(72.7)	264(100.0)
자녀양육 및 교육활동	32(15.0)	81(37.9)	101(47.2)	214(100.0)
전 체	24(9.1)	173(65.5)	67(25.4)	264(100.0)

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가사 활동에 대한 남편의 참여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남편의 가사활동 참여는 전체 가족역할에의 부부 공유도를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간 가족역할 구조는 보완형(65.5%)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공유형(25.4%), 분화형(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역할 구조가 점차 역할 분화형에서 역할 공유형의 평등주의적인 구조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변화하는 가족구조의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가사활동'에 있어서 보완형(51.9%)이 분화형(39.4%)보다 더 우세하였고, 자녀양육 및 교육활동에서 공유형(47.2%)이 분화형(15.0%), 보완형(37.9%)보다 우세하게 나타난 사실은 주지할만 하다.

이의 연구결과는 60~70년대의 연구결과(최재석 1966; 최신덕 1972; 류시중 1972)에서 가사활동에 대한 남편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음을 보여 준 것에 비하면 부부간 가족역할구조가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기혼남, 여의 성역할 태도는 중간점수 3.00에 약간 못미치는 2.65로 약간 전통적인 편에 속하며, 남성보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기혼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변인은, 연령, 학력, 부인학력, 가정의 총 월수입, 가족생활단계, 결혼형태, 자녀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 경우는 연령, 학력, 남편학력, 취업유무, 가정의 총 월수입, 결혼형태, 자녀수 등으로 나타났다.

2) 기혼남, 여가 응답한 부부간 가족역할구조는 중간점수 2.00보다 약간 높은 2.10로 나타났으며 남, 여 별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혼남성의 부부역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변인은 부인의 취업유무, 가정의 총 월수입, 결혼형태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 경우는, 학력, 취업유무, 가정의 총 월수입, 결혼형태등으로 나타났다.

3) 기혼남성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부부간 가족역할 구조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간의 가족역할구조는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는 남성의 부부간 가족역할구조는 보완형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는 남성의 부부간 가족역할구조는 공유형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기혼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는 부부간 가족역할구조는 유의한 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들의 성역할 태도와 가족역할과의 상관관계($r = .48, p < .001$)는, 여성($r = .19, p < .0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활동의 상관관계($r = .41, p < .001$)는 경제활

주) 남성들은 가족 내에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것 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평가 할 것이고, 반면 여성들은 여전히 가족역할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으로 보았지만 남, 여에 따른 가족역할 구조 유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집단의 분포만을 제시하였다.

동($r=.26, p<.001$), 대외적 활동($r=.33, p<.001$), 여가활동($r=.38, p<.001$), 자녀교육 및 양육활동($r=.26, p<.01$)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전체 기혼남, 여의 가족역할구조는 보완형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유형, 분화형 順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때, 부부간의 가족역할참여라는 것은 부인의 성역할 태도보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가사활동' 영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간의 가족역할 공유는 먼저 그들의 정서적 측면인 성역할 태도를 근대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역할 특히 가사활동에 대하여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과 가치평가를 변화시킬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성역할 태도가 남성들보다 근대화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남녀간의 역할구분이 전통성을 띠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성취적, 근대적 성역할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의 이중역할에 따른 긴장감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는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혼생활의 質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남편들이 대부분 지니고 있는 전통적, 보수적 성역할 태도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근대적 태도로의 역할변화를 시도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녀역할의 평등화에 대한 의식과 보다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의 夫婦役割 共有型的 성립을 위해서는 특히 남성측의 부부공동생활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역할구조가 역할분화형에서 점차 역할공유형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감안 할 때, 농촌가족과 빈민층가족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 본 연구결과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작업도 함께 진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규환 : 국민생활시간 조사 II. 신문연구소 학보 제 20권, 1983
- 2) 김명자 :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19권 3호, 1981
- 3) 김태현 : 가족구조, 기능 및 관계의 변화. 서울시 : 제 8회 가정복지세미나, 1989
- 4) 김태현 · 이성희 : 도시주부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논문집 제 3집, 1989
- 5) 류시중 : 한국도시가족의 역할-실제와 기대를 中心으로- 경북대 논문집 제 17집 인문사회과학편, 1976
- 6) 박숙자 :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8
- 7) 박인덕 : 부부상호간의 역할 중 남편이 기대하는 처의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제 15권 4호, 1977
- 8) 박태은 :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9) 변화순 : 여성의 취업과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0
- 10) 이미숙 : 주부의 성역할 구분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0
- 11) 이성희 : 부부의 역할과 사회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 12) 이정수 :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22권 2호, 1984
- 13) 이정연 :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전주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 21권 3호, 1983
- 14) 이은식 : 가사영역에서 본 한국가족의 역할구조-가족복지적 관점에서-. 부산대학교 논문집 제 21집 인문사회과학편, 1976
- 15) 이형실 · 옥선화 :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권 2호, 1985
- 16) 이효재 : 가족구조와 남녀역할. 世活等(편), 1977
- 17) 임정빈 :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19권 2호, 1981
- 18) 임정빈 · 정혜정 :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4권 1호, 1986
- 19) 옥선화 :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II),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제 13집, 1982
- 20) 윤명희 · 임정빈 : 도시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권 2호, 1985
- 21) 윤복자 :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제

13권 2호, 1975

- 22) 최규련: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 22권, 1984
- 23) 최신태: 도시부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제 1부), 한국문화연구원 논업 21집, 1972
- 24)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서울: 민중서관, 1966
- 25) 최신태: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0
- 26) 한남제: 한국도시가족 연구. 서울: 일지사, 1984
- 27) Araji SK: *Husbands' and Wives' attitude behavior congruence on family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309-320, 1977
- 28) Bailyn L: *Career and Family Orientations of Husbands and Wives in Relation to Marital Happiness. Human Relations* 23: 97-113, 1970
- 29) Barnett RC and Baruch GK: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49: 29-40, 1987
- 30) Brannon R and Juni S: *A Scale for measuring attitudes about masculinity. Psychological Documents*. 14: 6-7. In Barnett RC and Baruch GK, 1987
- 31) Eriksen JA and Yancy WL: *The division of family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301-303, 1979
- 32) Houseknecht SK and Macke AS: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Feb), 1984
- 33) Kuter Nancy G and Brogan D: *An Investigation of sex-related slang vocabulary and sex-role orientation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474-484, 1974
- 34) Millman M: *Observation on Sex-role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772-777, 1971
- 35) Mason KO, Czajka JL and Arber S: *Change in U.S. Women's Sex-role attitudes, 1964-197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573-576, 1975
- 36) Nickols SY and Metzen EJ: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Nov): 85-97, 1978.
- 37) Osmond MW and Martin PY: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744-758, 1975
- 38) Scanzoni J and Fox GL: *Sex Role. Family and Society: The Seventie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20-33, 1980
- 39) Tomeh AK: *Sex Role Orien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341-354, 1978